

그리스도만 높이는 사람: 침례자 요한(누가복음 강해 Ⅱ)

성경말씀: 눅3:15-18

지난 주: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 전령으로 백성의 마음을 예비한 침례자 요한, 그의 선포 핵심은 회개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다. 크리스천 믿음의 기본: 회개와 믿음(행20:21)
회개는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회개(행11:18)가 있고 매일 일어나는 회개가 있다. 구원 이후에도(계2-3) 회개가 강한 성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우리는 어떤가?

배경

주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종종 주님의 일이 자기 일이 되며 자기가 영광을 받는다.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일은 늘 사람을 교만하게 만든다. 사람들의 칭찬이 있을 때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에게만 영광을 돌리려는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사람이 대신 차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사42:8; 48:11).

행12:20-23, 헤롯 왕의 연설, “신의 음성이요, 사람의 음성이 아니다” 23절의 저주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하려는 사람들은 스스로 영광과 칭찬을 받지 않기 위해 몸부림쳐야 한다.

요한의 자기 위치 설정

유대 광야에 요한이 등장함, 400년 동안 대언자가 없었음,

하나님의 대언이 나오니 말 그대로 벌떼같이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함

15절: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었다. 무엇을? 메시아를 기대함.

그래서 혹시 이 사람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속으로 곰곰이 생각하고 있었음.

일이 잘될 때 내 위치를 망각하지 않아야 한다. 이때는 죄를 짓기 가장 좋은 때

심지어 종교지도자들도 사람을 보내 요한에게 물음(요1:19-27)

요한의 대답: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20). 목사나 사역자는 이 점이 분명해야 한다.

나의 정체: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23). 나는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

나의 위치: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 자격도 없는 자(눅3:16; 요1:27)

나는 주님 앞에 달려가서 백성의 마음을 예비하는 책무를 지닌 자, 그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주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은 마음속에 철두철미하게 이것을 각인시켜야 한다(주방, 설거지, 주차, 교사, 찬양대, 방송실, 집사, 지역 인도자, 목사, 전도사, 선교사).

교회가 주님의 일을 마땅히 감당하려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없이 그리스도나 교회를 이용해서 본인의 이득을 취하려 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개인이 망하고 교회가 망한다.

요한의 메시지

그의 삶은 온전히 그리스도만 높이는 것이었다.

1. 자기의 일 확정, 나는 겨우 물 침례를 준다(16). 물 침례 자체는 구원을 주지 못한다. 오직 회개하라고 말씀만 선포할 뿐이다. 회개한 자들에게 회개의 상징으로 물로 침례를 줄 뿐이다.

2.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신다. 주의 일을 하려는 모든 사람의 마음 자세
내 일의 배후에는 예수님이 계신다. 나는 그분에게 사로잡혀 그분의 능력으로 일한다.

3. 그는 예수님을 정확히 알고 그분의 사역을 정확하게 알렸다. 하나님의 어린양(요1:29), 하나님의 아들(요1:34)

주님의 일을 하려면 그분의 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바른 성도, 바른 교회가 될 수 있다

예수님의 일

1. 성령 침례를 주신다. 침례는 잠그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 선포, 듣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그분이 마련하신 유일한 죄의 해결책인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를 온전히 채우신다. 우리가 그분 안에 푹 잠긴다. 이러한 일을 성령 침례라고 한다.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난다. 요3의 니고데모와의 대화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보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한다(3, 5)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4)

물에서 나고 성령님에게서 나와야 한다(5). 양수 침례, 성령 침례, 두 번 태어나야 한다. 다시 태어나야 한다. 다시는 '하늘에서'

이렇게 성령 침례를 받으면 성령님이 영원히 성도 안에 들어와 거주하신다.

그는 영원히 하나님의 봉인으로 봉인되어 하나님의 아들딸이 된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령 침례는 구약과 공생애 기간 중에 없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신약 교회를 세우실 때에 하시는 말씀(행1:4-5; 행2:1-4).

그래서 다시 태어난 사람만 예수님의 신부로서 신약 교회에 속하게 된다.

성령침례는 어떻게 받는가? 기도원 가서 데굴데굴 굴러야 하는가? 불처럼 뜨거워져야 하는가?

아니다. 사람의 말이나 지혜나 행위나 노력으로 받을 수 없다.

롬10:8-10, 13, 선포자가 있어야 한다. 17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 선포를 들어야 한다. 듣고 하나님 앞에서 죄와 죄인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나의 위치를 깨들으며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간구할 때 성령 하나님이 죽어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던 그의 영을 살리시면 그는 성령 침례를 받아 다시 태어나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첫째 임무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주는 것이다.

이 일을 위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시고 죽었다가 묻혔다가 부활하심으로 성령 침례를 위한 모든 것을 예비하셨다. 오순절 이후부터 성령님의 침례 사역과 교회 형성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다 성령 침례를 받았는가? 구원받았는가?

이 사람들만이 알곡으로 그분의 공간에 들어간다(17).

2. 불 침례를 주신다.

하나님의 가장 큰 특징: 공의롭다. 그러므로 공의롭게 심판하신다.

롬2:6-11, 영원한 생명을 받는 자와 격노와 진노를 받는 자

하나님은 원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영존하는 불을 예비하셨다(마25:41).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마귀를 따를 때 공의를 집행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를 불속에 집어넣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이다.

예수님의 둘째 사역은 불신자를 위한 것이다(17).

알곡이 아닌 껍질은 끌 수 없는 불로 태우신다.

불 속에 푹 잠겨야 하므로 이것은 불 침례이다. 오순절/은사집회의 불 세례를 받으면 큰일 난다.

마귀에게 푹 잠기는 일이다. 신사도운동, 빈야드, 펜사콜라 부흥, 헤브리티치 등 모두 마귀의 불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의 경고(마10:28), 혹시 이 자리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오늘 지옥불의 심판을 면해야 한다. 오늘 성령 침례를 받아야 한다.

요한의 삶 요약

1. 그는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여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였다.
2. 그는 자기의 위치를 파악하였다.
3. 그리스도의 사역을 정확히 알고 오직 그분만을 선포하였다.
4. 이러한 삶의 정수는 그의 선언에서 드러난다(요3:30).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5. 공생애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에게 침례를 주는 특권을 받음. 나를 낮추어야 하나님이 올리신다.
6.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이 자세가 되어 있는가? 특히 일이 잘될 때 우리의 위치를 기억하고 겸손하게 주님을 섬겨야 한다.